

# 2019년 예수 성탄 노베나



주제: 수도회 내 친교 - 자애로운 연민으로 공동체 변화시키기

**성탄노베나 1일째.**

**공동체 자매들과의 친교**

시작 노래: *We are one in the Spirit ...* 또는 적당한 다른 찬미가

중앙 장식: 서로 겹친 손 이미지 / 또는 지역공동체 문화에 어울리는 의미 있는 상징

도입:

육화하신 하느님은 가정, 즉 존재를 공여하는 공동체에 사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경험하고 하느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합니다. 공동체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매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로 파견된 것입니다. 공동체 자매들에게 우리가 보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명백한 현시 중 하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친교 속에 성장하라는 하느님의 초대를 우리 공통의 성지인 육화하시는 말씀에서 듣습니다. 공통 기반에 대한 더 밀접한 접촉, 친교에 대한 더 큰 의지가 서로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시작기도

하느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기도로 성탄축일을 경축하도록 저희를 초대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간성 안에 계시는 아드님의 현존을 기민하게 의식하게 하소서.  
아드님의 모상을 닮게 하시고  
연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아드님처럼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당신의 외아드님과 우리 형제의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 독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인간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요한 1,12)

## OR/AND

**인용: 성 아놀드 안센:**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묵상은 선교 사도직이 갖고 있는 엄청난 가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은총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삼위일체 하느님 안

에서 빛으로 가득 차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A)

**이야기:** 힌두교 전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신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성을 남용했다. 그래서 주신인 브라마는 그들에게서 신성을 빼앗아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감추기로 결심하였다.

브라마는 신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인간들의 신성을 어디에 감출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신들은 “땅 속 깊은 곳에 묻자”고 하였다. 그러나 브라마는 “인간은 땅을 파 그 신성을 찾아낼 것”이라고 하였다. 신들이 다시 제안하기를 “바다 속 깊은 곳에 빠뜨리자”고 하였으나 브라마는 “안된다. 인간은 바다 속에 잠수 하는 방법을 배워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어떤 신들이 다시 “신성을 가장 높은 산마루에 숨기자”고 제안하였다. 브라마는 다시 “인간은 결국 모든 산을 오르고 자신들의 신성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모든 신들은 해법을 포기하고 말하였다. “우리는 신성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땅이고 바다고 인간이 결국은 닿지 않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브라마는 한참을 고심한 후에 “우리는 그들의 신성을 그들 자신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 감출 것이다. 인간은 그 신성을 이곳저곳에서 찾으려하겠으나, 진정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찾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신들은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이 인간의 신성을 감추기에 완벽한 장소라 동의하고 그곳에 숨겼다. 이 후 인간은 신성이 이미 자신들 안에 있는데도,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세상을 오르내리고, 파고, 잠수하고, 산을 오르고, 탐색하고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 **“신성은 우리 모두 안에 있다”**

Teilhard de Chardin은 “우리는 영적 경험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인간 경험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연민과 친절과 자애의 성역인 그 신성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셨다.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우리이기 에(창세 1.27) 하느님답게 사는 이것이 우리의 성소이다.

### **개인 영찰 및 나눔:**

나는 나의 일상 어떤 부분에서 신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라는 부르심을 받는가?

내가 갖고 있는 선물, 더 나눌 수 있는 선물은 어떤 것일까? - 평화? 친절함? 이해? 관대함? 친절함?

공동체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자매들의 신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공동체가 따뜻한 집이 되도록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 서로 나누기

#### 청원기도:

우리는 서로 각자 안에 있는 신성의 현존을 인식하고 경축하며, 각자 안에 있는 연민과 친절, 선함과 신성한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잠시 침묵하는 가운데 각 회원의 이름이 언급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회원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봅시다.

#### 청원기도 후렴:

**하느님, 저희로 하여금 각자 안에 머무시는 당신의 현존을 발견하게 하시고 공동체 회원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 저희로 하여금 상냥하지 못하고 짜증스러울 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당신의 사랑을 찾게 하소서. **후렴**

\* 자매들의 냉정함 속에 숨어있는 당신을 선을 보게 하소서. **후렴**

\* 성실함을 당연시 하는 그 성실한 자매들 안게 계신 당신을 포용하게 하소서. **후렴**

\* 늘 마음을 열고 있는 자매들 안에서 당신의 무비판적 수용을 알아보게 하소서. **후렴**

\* 모진 사람 뒤에 있는 당신의 넉넉함을 찾게 하소서. **후렴**

\* 우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용서할 때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소서. **후렴**

\* 통합적 삶의 관점에서 연로하고 경험 있는 자매들의 지혜와 젊은 자매들의 열정 과 생동력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후렴**

(Joyce Rupp 책에서 인용)

“우리 마음에는 공동체를 진정한 집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상호문화적 통합적 삶에 선물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경축되는 동시에 세계와도 더불어 경축되고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Seven statement)

**마무리 기도:** 주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빛의 광채로 가득 차 사랑스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인간성 안에 성장하면서 당신의 생명과 가르침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넓은 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안에 있는 사랑이신 당신 광채의 빛을 전하고, 당신의 선과 연민을 영감하며 공동체 자매들과 나누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신 탄생의 경이로움을 경축하면서 저희 삶 순간마다, 자매들의 삶의 순간마다 당신의 현존하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소서. 당신은 저희 안에 당신의 집을 만드셨습니다. 저희도 자매들 마음 안에 집을 짓고, 공동체에서 자매들의 선물을 경축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를 축복하시어 이 공동체가 참 성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모찬가

**성탄노베나 2일째.**

**관구/지구 안에서의 친교**

성가: 자유 선택

도입

크리스마스 노베나 2일째 주제는 “관구/지구 안에서 이루는 친교”입니다. 우리는 관구/지구의 모든 수녀들과 일치를 이루며, 마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로 지지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수녀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 곳으로 내적 여행을 떠나봅시다.

*(침묵 가운데 관구/지구의 여러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수녀님들의 사진을 보여 준다)*

(있으면) 관구의 상징을 보여준다. (관구의 상징이 없는 경우 그 나라나 지역에 어울리는 상징을 선택한다.)

간단하게 상징을 설명한다.

## 시작기도

주님, 당신께서 저희 세상에 오시기를 열망합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에 계시지만 아직도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 특히 동료 수녀님들 안에 끊임없이 육화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동료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오면

저희는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의 자애로운 연민으로 저희를 변화시키시게 할 것입니다..

이 청원을 성부와 함께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성령 안에 하나 되신 당신의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 이야기

오래전, 수많은 배들의 무덤으로 알려진 어느 위험한 해안가에, 아주 작고 초라한 구조선 항구가 있었다. 건물은 헛간 수준인데다 배는 한척뿐이었다.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자원 봉사자들은 해안경비사로 밤낮으로 끊임없이 봉사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난파선을 구조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다.

이 작은 항구는 고맙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조하였고 순식간에 널리 유명해졌다. 여기에서 구조되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이 항구 주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이 항구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힘을 희생하는 데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새로운 배들을 사고 새로운 팀들을 꾸려 훈련시켰다. 그 작던 항구는 크게 성장하고 번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 항구의 많은 고객들은 더 이상 작고 초라한 건물을 원치 않게 되었다.

구조된 자들은 자신들의 첫 피신처로서 더 안락한 곳을 원했다. 그리하여 침대를 갖춘 임시캠프가 만들어졌고, 증축된 건물에는 더 좋은 가구들로 채워졌다. 이리하여 이 생명 구조 항구는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로 엄청나게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클럽회관 이상으로 더욱 안락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자, 구조사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구조선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원을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방은 온통 구조선 문장으로 도배되었고, 새로 도착하는 클럽회원들을 환영하는 방 천장에는 커다란 구조선 모델을 걸어 놓았

다.

이즈음, 커다란 배가 해안에서 침몰하여, 고용 선원들은 얼어버린 화물과 역사직전의 승객들을 구하여 돌아왔다. 처량하게 기진맥진해진 표류자들은 외국인과 이방인들이었다.

그러자 화려한 클럽회관에 소동이 일어났다. 행정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옥외에 샤워실을 마련하여 난파당한 사람들은 클럽회관에 들어오기 전에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소집된 회의에서는 회원들 간 논쟁이 일어났다. 회원들 대부분 구조 업무 중단을 원했는데, 이유는 클럽의 일상 활동에 불편하고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생명구조 항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구조업무가 우선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다수가 투표에서 승리하였다.

승리한 이들이 말하였다. 난파로 인해 처참하게 된 이들의 생명이 자신들에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다른 곳에 자신들만의 생명구조 항구를 열면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결정하였다.

수년이 지나 새로운 항구도 처음의 항구처럼 클럽회관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세 번째 피난처가 세워졌다. 그러나 여기도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오늘날 이 항구들을 가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해안가를 따라 있는 상류클럽의 괄목할만한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 해안은 여전히 위험하다. 배에 치명적이고 난파선의 선원들 대부분은 익사한다.

#### **개인묵상 및 나눔 위한 질문:**

-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연상이 떠오르는가?
- 우리 관구/지구 역사에서 이와 비교할만한 발전이 있는가?
- 우리 관구/지구의 사명이 멀지 않아 바뀔 수 있는가? 왜 그런가?

## 청원기도

주님, 당신은 지금도 저희 세계에 오시어 그 안에 육화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 오늘 저희가 당신의 부르심과 저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소서.

**저희의 생명이신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당신의 자애로운 연민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소서.

○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안에서 당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소서.

○ 당신의 연민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소서.

○ 저희 관구/지구의 공동체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 세상을 떠난 저희 관구/지구의 수녀님들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아멘.

## 주님의 기도

노래: 자유 선택

## 기도

서로 관계 맺고 함께 머무를 때는

정직하고 순수하며

공허한 말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며

인내롭게 기다리고

친절하게 들으며

슬픔을 함께 견디고

동료들의 성공에 기뻐하게 합니다.



예측가능한 장애물에 관련해서는  
먼저 생각하고

자애로운 동행을 하며  
진실로 고마워합니다.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서로 지지하고

동료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여유와 용기를 줍니다.

이로써 진정한 성탄이 도래할 것입니다.

Max Feigenwinter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어 저희 관구/지구가 당신의 성탄을 맞이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모찬가**

## 성탄노베나 2일째. 관구/지구 안에서의 친교

성가: 자유 선택

### 도입

크리스마스 노베나 2일째 주제는 "관구/지구 안에서 이루는 친교"입니다. 우리는 관구/지구의 모든 수녀들과 일치를 이루며, 마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로 지지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수녀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 곳으로 내적 여행을 떠나봅시다.

*(침묵 가운데 관구/지구의 여러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수녀님들의 사진을 보여 준다)*

(있으면) 관구의 상징을 보여준다. (관구의 상징이 없는 경우 그 나라나 지역에 어울리는 상징을 선택한다.)

간단하게 상징을 설명한다.

### 시작기도

주님, 당신께서 저희 세상에 오시기를 열망합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에 계시지만 아직도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 특히 동료 수녀님들 안에 끊임없이 육화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동료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오면

저희는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의 자애로운 연민으로 저희를 변화시키시게 할 것입니다..

이 청원을 성부와 함께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성령 안에 하나 되신 당신의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 이야기

오래전, 수많은 배들의 무덤으로 알려진 어느 위험한 해안가에, 아주 작고 초라한 구조선 항구가 있었다. 건물은 헛간 수준인데다 배는 한척뿐이었다.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자원 봉사자들은 해안경비사로 밤낮으로 끊임없이 봉사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난파선을 구조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다.

이 작은 항구는 고맙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조하였고 순식간에 널리 유명해졌다. 여기에서 구조되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이 항구 주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이 항구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힘을 희생하는 데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새로운 배들을 사고 새로운 팀들을 꾸려 훈련시켰다. 그 작던 항구는 크게 성장하고 번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 항구의 많은 고객들은 더 이상 작고 초라한 건물을 원치 않게 되었다.

구조된 자들은 자신들의 첫 피신처로서 더 안락한 곳을 원했다. 그리하여 침대를 갖춘 임시캠프가 만들어졌고, 증축된 건물에는 더 좋은 가구들로 채워졌다. 이리하여 이 생명 구조 항구는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로 엄청나게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클럽회관 이상으로 더욱 안락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자, 구조사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구조선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원을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방은 온통 구조선 문장으로 도배되었고, 새로 도착하는 클럽회원들을 환영하는 방 천장에는 커다란 구조선 모델을 걸어 놓았다.

이즈음, 커다란 배가 해안에서 침몰하여, 고용 선원들은 얼어버린 화물과 역사직전의 승객들을 구하여 돌아왔다. 처량하게 기진맥진해진 표류자들은 외국인과 이방인들이었다.

그러자 화려한 클럽회관에 소동이 일어났다. 행정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옥외에 샤워실을 마련하여 난파당한 사람들은 클럽회관에 들어오기 전에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소집된 회의에서는 회원들 간 논쟁이 일어났다. 회원들 대부분 구조 업무 중단을 원했는데, 이유는 클럽의 일상 활동에 불편하고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생명구조 항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구조업무가 우선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다수가 투표에서 승리하였다.

승리한 이들이 말하였다. 난파로 인해 처참하게 된 이들의 생명이 자신들에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다른 곳에 자신들만의 생명구조 항구를 열면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결정하였다.

수년이 지나 새로운 항구도 처음의 항구처럼 클럽회관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세 번째 피난처가 세워졌다. 그러나 여기도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오늘날 이 항구들을 가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해안가를 따라 있는 상류클럽의 괄목할만한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 해안은 여전히 위험하다. 배에 치명적이고 난파선의 선원들 대부분은 익사한다.

#### **개인묵상 및 나눔 위한 질문:**

-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연상이 떠오르는가?
- 우리 관구/지구 역사에서 이와 비교할만한 발전이 있는가?
- 우리 관구/지구의 사명이 멀지 않아 바뀔 수 있는가? 왜 그런가?

## 청원기도

주님, 당신은 지금도 저희 세계에 오시어 그 안에 육화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 오늘 저희가 당신의 부르심과 저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소서.

**저희의 생명이신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당신의 자애로운 연민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소서.

○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안에서 당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소서.

○ 당신의 연민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소서.

○ 저희 관구/지구의 공동체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 세상을 떠난 저희 관구/지구의 수녀님들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아멘.

## 주님의 기도

노래: 자유 선택

### 기도

서로 관계 맺고 함께 머무를 때는  
정직하고 순수하며  
공허한 말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인내롭게 기다리고  
친절하게 들으며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며

슬픔을 함께 견디고  
동료들의 성공에 기뻐하게 합니다.

예측가능한 장애물에 관련해서는  
먼저 생각하고

자애로운 동행을 하며  
진실로 고마워합니다.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서로 지지하고

동료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여유와 용기를 줍니다.

이로써 진정한 성탄이 도래할 것입니다.

Max Feigenwinter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어 저희 관구/지구가 당신의 성탄을 맞이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모찬가**

## 성탄노베나 3일째.

### 국가/대륙 내의 관구/지구들의 친교

1. **초대말1** :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는 우리 주위의 것들에 집중해 봅시다.....(잠시 침묵)

2. **노래** : (성령께 드리는 찬미/ 모임/ 환영에 맞는 노래)

3. **초대말2** : 우리의 세번째 novena 주제는 “국가/대륙 내의 관구/지구들의 친교” 입니다. 이번 대림절은 우리의 개인 또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성찰하며 우리의 인식과 의식을 넓히고 도전 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의 국가/대륙 안의 관구/지구들의 이야기가 각자의 삶의자리에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한 가족으로서 우리의 친교가 더욱 견고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상징(Symbol)** : (각자 속한 국가/대륙의 관구/지구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서 중앙에 놓는다.)

5. **묵상** : 성령께서는 우리의 창립 세대에게 그들의 지평 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기쁜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선교와 친교에 대한 감각은 선교 여정에서의 어려움 안에서도 대담한 결정과 기쁜 희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관구/지구들의 이름을 바라봅시다. 그들(관구/지구들)이 어디에 있든 경계심을 버리고 우리의 카리스마를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우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넓혀봅시다.

- 우리의 대륙/국가 안의 관구/지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친교의 영역을 넓히도록 어디로 초대 되었습니까? 친교에 로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 나눔

6. **말씀** : 하느님과의 친교는 다른 이들과의 친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을 들읍시다. (이사야. 42, 1-7)

7. **청원기도**:

후렴 : 주님,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저희를 일치하게 하소서!

-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물학적인 가족, 종교, 선교 공동체 등, 그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깊은 감사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관구/지구의 친숙한 영역의 경계 너머에 있는 이들과 서로 더 깊이 연결되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저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인식하고 알아차려 행동으로 연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대의 기쁨과 어려움이 나의 기쁨과 어려움으로 동감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연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다른 기도 지향을 추가합니다.

**8. 기도 :** 저희의 관구/지구의 이야기의 근원이신 사랑이신 하느님, 당신은 저희가 한 가족으로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서로의 분열을 가져오는 경쟁과 조작들에 맞서 싸울 힘을 주시고 저희를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으로 지켜 주십시오. 세상을 당신 사랑의 친교 안으로 인도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에서도 저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9. 주님의 기도

### 10 제 15 차 총회를 위한 기도

가장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당신 사랑의 일치에 참여하도록 불러 주시고 친교 확장을 위한 선교를 저희에게 맡겨 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제 15차 총회를 준비하며 청하오니 식별 과정에 있는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소서. 수도회의 열망과 부서진 세상의 부르짖음에 연민으로 귀 기울여 일치를 이루게 나이다.

당신의 자극과 영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의 투신을 기쁘게 갱신하도록 힘을 주소서.

삼위일체 하느님, 저희는 사랑 가득한 당신의 생명에 잠겨 연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일을 나누기를 열망합니다.

창립세대 수녀님들과 저희를 앞서 가신 수천명의 SSPS 수녀님들과 함께 일치하여 저희



수도회의 모든 것을 당신 섭리의 보살핌에 맡기나이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여 저희 안에 사소서 또 모든 사람 안에 사소서!

**11. 성가:** "I thank my God..." (또는 적절한 성가) / 성모찬송

## 성탄노베나 4일째.

### 전체 수도회 안에서의 친교

시작성가: 한 마음 다양한 모습들(One heart, many faces)

\* 상징/중앙장식: 지구본과 대륙을 상징하는 색상의 천들을 수도회 로고와 함께 중앙에 장식하거나 또는 성 아놀드 얀센 신부님의 석관에 있는 대륙을 대표하는 5개의 작은 하트가 새겨진 큰 하트를 장식한다.

\* 설명: 오늘, 우리는 전체 수도회 안에서의 친교를 이루며 성장하도록 부르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다. - 모든 대륙, 우리 회원들 가운데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현존을 보고 느낀다.

우리는 우리 수도회의 명칭인 성령선교수녀회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들의 관계의 원을 넓히는 임무를 맡았다.

오늘날 우리 수도회는 45 관구/지구 그리고 총집행부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축복받은 3,000여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50개 국적으로 50개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선교 제자들이라는 큰 가족의 부분이 되는 특권이다.

*하느님은 다양성 안에서 활동하신다... "우리의 문화가 의식의 혁명, 의식의 참여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한다." ... 내가 "참여 의식을 사랑할 때 다른 하나는 저곳에 살고 있는 이들이 내 삶의 에너지 중 일부라는 것과 내 존재가 내 내면에 있는 다른 이의 생명 에너지 중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분리할 수 없다. 나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이 만물을 통하여 순환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것이다." (베아트리스 브르티에).*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참여의식을 가져오게 하소서.

#### 시작기도: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흠송합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 계시기에 인간의 눈은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가장 가깝고, 가장 먼 곳에서도 다가가고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당신의 육화 방식입니다

우리 수도회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각 회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 현존의 다양한 표현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여의식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당신의 외아들이며 저희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용:**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몸이 되도록 한데 모으셨습니다." (마더 요세 파)

**이야기:** 우분투-남아프리카의 이야기- 나는 우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우리이기도 하다)

"어느 날, 서양의 한 인류학자가 원주민 부족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다. 그는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고 그들은 기꺼이 게임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그는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나무 아래에 놓고 누구든지 바구니에 먼저 손에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혼자서 그 과일을 모두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모두 정렬시키고 손을 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다. 준비. 완료. 출발!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 동시에 도달했다. 아이들은 커다란 원을 그리고 앉아 과일을 함께 먹으며 내내 웃고 웃었다.

인류학자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 중에 한 사람만 과일 바구니를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서로를 기다렸는지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우분투,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퍼한다면 우리 중 한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우분투는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류에 대한 일치,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공유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성취함이다."

**성경소구:** 코린토 1서. 12: 12-14, 27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

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살아 계신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아빌라의 데레사가 되어야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손, 발, 입 그리고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기를 좋아하시며 우리의 열린 손으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우리가 선포한 말로써 우리 자신이 아닌 복음으로 세상을 축성하고자 하신다. (교황 프란체스코)

### 성찰을 위한 침묵

**청원기도:** 하나님, 당신은 저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는 공동의 기반이십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도회로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 메모: 중앙에 여러 색깔의 천을 장식하고 잠시 침묵 후에 각 대륙의 초를 켜다.

**\* 응송: *하나님, 저희의 연민으로 하여금 당신 변모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1.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 11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178명의 수녀님들과 친교를 이루고 감사의시간을 잠시 갖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희망과 열망을 증진시키는 촉진자가 되게 하소서. '우분투' (나는 우리이기 때문이다)의 영이 공동체 안에서 저희의 삶에 영감을 주고, 그 삶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 안에서 친교의 영역을 넓히게 하소서. 저희의 나약함을 인식하며, 저희가 폭력, 민족 갈등, 배제, 소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상처받은 이들의 치유자가 되게 하소서.

2. 우리는 PANAM관구/지구에는 있는 12개 국적, 603명의 수녀님들과 친교를 이루고 감사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인간의 공허함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봉헌하고자 오셨습니다. 인간 삶의 고통 속에서, 당신은 연민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외로운 이들에게 환대의 인사를,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노숙자들을 위한 집을 제공하는 자 되게 하소서.

**\* 응송: 하느님, 저희의 연민으로 하여금 당신 변모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3. 우리는 아시아 대륙의 9개 국적, 1418명의 수녀님들과 친교를 이루고 감사의 시간을 잠시 갖 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사랑스런 선물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주신 것은 그분의 현존으로 마음의 보물 같은 선물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내면의 치유, 마음의 평화, 연민, 용서, 존엄과 정의 - 주 예수님, 저희가 당신이 축복해 주신 이 선물들의 힘을 믿게 하소서. 창립 세대처럼 '우리 사회에서 희생되고 버림받고 착취당한 이들의 외침에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4. 우리는 유럽에 있는 16개 국적, 733명의 수녀님들과 친교를 이루고 감사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하느님, 이새의 새순, 당신에게 저희의 갈망하는 마음을 들어올립니다. 우리의 힘을 인식하고 도전하며 연대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싹을 경험하게 하소서.

5. 우리는 오세아니아에서 있는 2개의 국적, 78명의 수녀님들과 친교를 이루고 감사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희망의 하느님, 오소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아침의 별이 되시고, 결코 꺼지지 않는 빛, 저희의 길을 당신께로 인도하는 희망의 횃불이 되어주소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저희의 삶인 가정을 만들어 당신의 영원한 선함이 보증하는 사랑과 왕성한 희망을 올려 퍼지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시편:**

**마침기도:**

저희가 복음서의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에서 건강하고/성스러운 사람 간의 만남의 여정인 들어가고, 인사하고, 듣고, 느끼고, 축복을 주고 받음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가 서로 간에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당신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인간이라는 공통의 유대, SSPS라는 공통의 유대감을 계속 유지하게 하소서. 저희가 세계 각지에 있는 자매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로 서로를 양육하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와 선함과 연민과 환대의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서로 돕게 하소서. 우리의 성소와 응답이 우리를 일치시키고 '우리'와 '그들'의 태도로부터 점점 더 포괄적인 것으로 옮겨가도록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살게 하소서. 저희가 삼위일체이신 당신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SSpS로서 나눈 공통의 유대를 계속 유지하게 하소서.

**축복받은 어머니께 드리는 마침 시편**

## 성탄노베나 5 일째.

SSpS 의 돌아가신 회원들과의 친교 (우리에 앞서 걸어가신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

시작노래

중앙장식: 돌아가신 수녀님들의 사진들

### 도입

*오늘날의 우리 이야기는 과거와의 연결을 통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 앉은 난쟁이들과 같다. 우리는 과거의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멀리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시력이 더 좋거나 키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들어올려서 그들 위에 우리를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John of Salisbury)*

우리보다 먼저 걸어난 우리의 자매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열어주었다.

디트리히 본호퍼(Dietrich Bonhoeffer)는 베지(Bethge) 부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썼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공백을 매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으며 그러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저 참고 견디어야 한다. 처음에는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그것은 큰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그 간격은 채워지지 않고 남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추억이 아름답고 완전 할수록 이별은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감사함은 고통의 기억을 조용한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다. 당신은 좋은 추억을 가시처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로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 물벌레와 잠자리의 이야기.....

작고 잔잔한 작은 연못 바닥에는 물벌레들의 무리가 있었다. 먹잇감을 찾아서 연못 바닥의 진흙 위를 분주히 왔다갔다하며 어슴푸레한 불빛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 무리였다.

그러나 물벌레들은 그들 중 몇몇이 무리와 살아가는 것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몇몇은 수련 줄기를 움켜쥐고 천천히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갔고, 다시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어느 날 그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물벌레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의 친구들 중 또한 명이 줄기를 타고 올라간다. 그가 가는 곳이 어디일까?”

물벌레들은 주의를 기울이며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친구를 바라보았지만, 그 역시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물벌레들은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그 사라진 친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나요?” 첫 번째 물벌레가 말하였다.

“그는 우리들 사이에서 행복하지 않았나요?” 두 번째 풍뎅이가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 풍뎅이가 궁금해 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수께끼에 직면했다. 마침내 가장 나이 많은 물벌레가 동료들을 불러 모았다.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 그가 말했다. “다음 번 수련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어디로 왜 갔었는지 이야기를 하러 돌아올 것을 약속해 줘” 그들은 모두 엄숙하게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얼마 후 봄날의 어느 날, 정확하게 그 제안을 했던 물벌레 자신이 수련 줄기를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알기도 전에, 그는 수면을 지나서 커다랗고 푸른 수련 잎 위로 떨어졌다.

물벌레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달랐고, 심지어 그의 몸조차 뭔가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고, 반짝이는 네 개의 날개와 분명 자신의 몸인데도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익숙하지 않는 자신의 몸을 여전히 궁금해 하며 바라보다가, 문득 날개를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날개를 움직이자 갑자기 어떤 방법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중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물벌레는 잠자리가 되어 있었다. 새로 태어난 잠자리는 넓고 좁은 원을 그리며 허공을 왔다 갔다 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은 놀라웠다. 잠시 후, 잠자리는 쉬기 위에 나뭇잎에 앉았다.

그 순간 잠자리는 물 속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인 물벌레들이 연못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그 때 잠자리는 그들이 함께 했던 약속을 기억했다.

잠자리는 그의 오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수면 위로만 부딪힐 뿐이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슬프게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노력 했어.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구나. 게다가 내가 만약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나의 친구들은 변한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한참 생각한 후에 깨달았다. “나는 그들 역시 잠자리가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 때에야 그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내가 어디로 갔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잠자리는 빛과 바람이 있는 새롭고 멋진 세상으로 행복하게 날아 올랐다.

*(작자미상)*

## 기도

주님, 당신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시기에, 죽은 모든 이들이 당신과 함께 살 것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우리 마음 안에 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당신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 희망합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헤어짐을 만남으로 바꾸시고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청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희망과 믿음입니다. 당신 생명의 힘이 죽은 이들에게 머무시기를, 그 생명의 힘이 또한 우리를 이끄시어 그들과 다시 하나되게 하여 주시기를,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7,24-26)*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의 존재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마치 서로의 존재 안에서 세포를 나누고 생명력의 일부를 전달하면서 다른 이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오래도록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탈리 골드버그)*

### **묵상을 위하여 잠시 시간을 가진 후 나누기.**

당신이 알고 있는 세상을 떠난 자매(한 명 혹은 두 명)와 함께 했던 체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도록 초대받았습니까?

### **기도**

깊이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내적 힘을 발견할 수 있는지.....

조용한 시간 안에서 자매들의 이름을 말해 봅니다.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선교활동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냈던 그들의 훌륭한 면모를 이름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이름이 불리면 종소리를 울립니다. 이 소리는 그들의 선함이 어떻게 우리의 안에 그리고 삶 안에 남아 있는지 기억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또는) 그들이 세상에 가져온 빛의 상징으로 초를 켵니다.

*이 후에 Laudate Omnes Gentes 또는 Bless the Lord 를 부릅니다.*

### **주님의 기도**

#### **마침기도:**

우리의 삶을 지으시는 하느님, 믿음의 불꽃으로 우리의 영혼에 불을 밝혀주었던 수천 명의 수녀님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당신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을 떠나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말과 삶의 증거로써 우리를 당신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끌었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당신을 신뢰하며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우리 SSPS 의 이야기가 계속되듯이,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마침성로 Blessed Mother 를 부릅니다.**

## 성탄노베나 6일째

'변모하는 존재'가 되도록 살아있는 동안 '관상적 태도'를 키워가도록 불리움 받았다: 양성

노래: 자유롭게 정함

### 초대말

성탄 노베나 제 6일째, 오늘의 주제는 '변모하는 존재'가 되도록 삶 전체에 '관상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도록 불리움 받았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변화하도록, 또 2000년 전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하느님에 의해 변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또한 변화시키고 싶어하시는 구유 안의 아기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 드립시다.

### 시작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은 우리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저희는 당신이 저희의 삶 안에 들어오시어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가져다 주시는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모든 것들, (한 자매가 돌을 앞으로 가지고 온다)

우리 안에 말라버린 모든 것들, (한 자매가 마른 스폰지를 가지고 나온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 (한 자매가 부러진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온다)

우리 안에 얼어있는 모든 것들, (한 자매가 얼어있는 물(얼음)을 가져온다)

당신의 사랑, 선하심과 자비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간구 드립니다, 아멘.

### 이야기: 어린애가 해냈다(실화를 각색함)

미사중에 사제와 성당 관리인은 지난 10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성당 안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본당 사제의 사목 활동안에서의 노력을 조롱하고 비웃었기 때문에 본당 사제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었다.

지금 그는 거기에 앉아서, 마치 신문을 응시하고 있는 듯 보였다. 미사 중에 이미, 성당 관리인은 그를 꾸짖고 싶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얼마나 슬퍼 보이는지, 또 그의 뺨에 눈물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그 남자를 내버려 두었다.

다른 날 저녁 본당 사제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손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가 해냈어요. "저를 성당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라고 저는 맹세했었어요. 절대로! 그러나 이 아이가 해냈어요. "

그는 사진이 실린 주간지 신문을 성당에 가지고 가서 그 신문을 펼쳤다. 거기에는 그의 어린 손녀에 대한 사진이 있었다. "아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다섯 살짜리 아이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할아버지요. 나랑 가끔 성당에 가시는 분.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 고집이 세셔요. 제가 아무리 여러 번 부탁해도 그분은 절대 안 가시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아이와 함께 있지 않잖아요." 라고 본당 사제가 말했다.

"아직요", 라고 그가 대답했다. "그건 그 아이 앞에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사실대로 말하자면, 첫 리허설 같은 거예요,"

"그게 당신에게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그렇죠? 또한 당신은 그 아이가 이것을 알게 하고 싶어하지 않으셨고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 남자는 당황하여 본당 사제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이에게 그렇게 큰 힘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제는 매우 사려깊게 응답했고 그 남자는 그가 구유 안의 아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자: Rudolf Hempel, from: "The 100 best Christmas Story "; 요약)

## **성찰**

잠시 침묵안에서, 공동체는 '구유안의 아기'를 관상하도록 초대된다...

우리가 구유안의 예수님을 내안에/우리안에 오시도록 하면 어떤 변화가 나/우리안에서 일어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이야기 속의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몹시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우리 자신들안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가 일어나도록 합시다-구유안에 계신 아기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합시다-침묵의 시간 안에서.

## **청원기도**

하느님은 구유안의 아이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변모시키십니다. 기도합니다:

- 하느님, 저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어 저희를 변모시켜주십시오.

## **후렴(노래):**

**오 주여, 당신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떼제)**

**다른 후렴을 부를 수도 있다.**

- 하느님, 저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어 모든 고통, 병고를 치유시켜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주십시오.
- 하느님, 저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어 저희의 딱딱한 마음과 사랑없는 마음, 저희의 상처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 하느님, 저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어 저희가 지구의 표면을 새롭게 하는데 공헌하고, 쓸모가 있도록, 또 우리의 사랑과 에너지를 쏟아 붓게 하는 우리의 노력들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 하느님, 저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어 저희의 기쁨과 슬픔, 고통, 범위와 한계들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알고 사랑하시는 하느님,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예를 드립니다. 아멘.

## 주의 기도

### 노래: 자유로이 정함

## 기도

한미디 말

소리

이미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뭔가 다른 것을

강요당하고

희망 하나

그리움

기대감

새로운 출발을 하고

떠나고

꿈들을 믿고

더 이상.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않고

밤의 별

침묵 속의 말

구유안의 아기

Andrea Schwarz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주신 이 날(밤)을 축복하소서. 아멘.

**성모께 드리는 마침 성가**

## 성탄노베나 7일째

### 친교봉사에 있어서 리더쉽

#### 시작성가

**데코레이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동굴게 앉은 자리 가운데에 착한 목자의 사진과 공동체 이미지 사진을 놓는다.

**시작 소개:** 오늘은 노베나 7일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제인 친교봉사에 있어서 리더쉽에 대해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수도회의 구조와 리더쉽 스타일은 참여와 친교를 촉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상호식별과 참여적 리더쉽을 경험한다.(14차 총회)

권위(authority)이라는 말은 증가하고, 힘을 키우고, 세우고, 교양이 있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우리를 자신의 비전의 문턱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별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속한 공동체의 깊은 맥박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 자기 증진이 자주 오용되는 세상(사회)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용된 자기 영광, 자기증진은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느님의 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배하기보다는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차지하는 다양한 역할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와 에너지가 삶을 증진시키고 친교를 이루기 위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요한복음-10:10**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필립비서 2:1-11**

**이야기: 메시아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한때 그림 같은 숲 한가운데에 오래된 석조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이 수도원을 찾는데 필요한 중요한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평화로운 정신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수도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도승들은 서로 질투하고 짜질 해져 갔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은 그들의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고통을 받았고, 그의 친한 친구인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현명한 옛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수도원장의 녀두리를 들으면서 랍비는 한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도원장은 “무엇이라도 해주세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환시를 하나 받았는데 그 환시는 이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메시아는 수도승들의 대열 속에 있습니다. 수도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메시아였습니다.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 누가 메시아인가? 그는 수도원으로 달려가 동료 수도승들에게 이 흥미진진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수도승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였나?

그날부터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요셉과 이반은 메시아를 경시하는 죄를 짓고 싶지도 않아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피에르와 나이부는 서릿발 같은 분노를 뒤로 하고 서로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수도승들은 서로 봉사하기 시작했고, 도울 기회를 찾고, 치유를 구하고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는 용서를 청했습니다.

한 여행자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여행자가 수도원으로 가는 길을 찾자, 곧 그 곳의 놀라운 정신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수도원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들은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승들은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묵상과 나눔:** 이 이야기에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의 힘을 서로 연결시키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내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가장 깊은 갈망과 가장 높은 포부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은 평화와 화해를 이끌기 위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습니까? 나의 상처



와 취약함은 치유와 갱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에 우리는 말구유 안에 있는 작은 아기의 부드러움, 무력함, 취약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힘을 봅니다. 그 힘은 성인기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관계하고 행동하는 방식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특히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보여준 그분의 리더십 스타일에 의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도록 합니다.

###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순간에 한 사람을 완전히 중심에 두고 것이고 붙잡는 것이고 또는 꺼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느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떼지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흑인인가 백인인가,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로 그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자매로 보았습니다-혈연관계가 있는 가정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감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응답: 예수님,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옮기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며,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눈 먼 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과 매춘부들을 그의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수하지 못한" 개인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물려드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그들 자신에 대해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가감으로써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응답: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한 형제자매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 연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동정심을 잃으면 우리는 영혼을 잃습니다.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응답: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함으로 서로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봉사하셨습니다:**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까요?” 그들이 보기를 원하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걷기를 원하면 걷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빵을 원하면 빵을 주었고, 그들이 와인을 원하면 와인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의 힘 사랑에서 오셨기때문입니다.

응답: 예수님,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근원, 사랑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출처: Jesus CEO, Laurie Beth Jones)

## 주님의 기도

### 마침 기도:

예수님, 당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저희에게 생명과 풍요로운 삶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당신의 목적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신이 사람이 되어 오심은 저희들에게 우리 인간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제자들인 저희로 하여금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태어났고 독특한 방식으로-다름, 삶을 증진시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긴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킴으로써 안에서 삶-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힘이 각 각의 걸음을 만들고 우리가 지배가 아닌 친절의 한 걸음, 경쟁이 아닌 연민의 한 걸음, 힘없는 자들을 위한 정의의 한 걸음,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한 한 걸음을 택하게 하소서. 우리 SSPS 가족이 '위대한 사람은 작고 작은 사람은 위대한 집'이 되게 하소서. 아멘

## 성모찬가

## **성탄노베나 8일째.**

### **교류 문화적 삶으로의 부르심**

**시작** : 모든 것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경배하며 또한 모든 이들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흠송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진정으로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느껴봅니다. (짧은 침묵).

**노래**: (성령께 또는 화합에 대한 적당한 노래)

**서문** : 노베나 8일 째의 주제는 '교류화적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SSpS로서의 다문화성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땁니다. 이는 현시대 성령의 다양한 면(얼굴)들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풍요와 삶의 역경 모두를 국제공동체 안에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적 여정 안에서 우리가 직면한 빛과 그림자들을 인식하며, 우리 각자 안에 자리하는 사랑을 발견하는 기회들로 다름들과 반대들을 넘어 바라보고 숙고합니다.

**상징** : (다문화성을 상징하는)

**묵상**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봉헌된 이 선교수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다른 이들에게 삶의 충만함을 가져다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선교 수도 공동체에서의 삶은, 우리 삶과 활동들 안에서 거룩한 사랑이 드러나는 현존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국적과 언어가 다른 자매들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교회의 일치와 다양성의 살아있는 상징이 됩니다.

이국땅으로 선교 파견된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이야기**: "다문화적(국제) 공동체, 나의 시작과 끝"

나는 사람들의 말을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영어로 말하나 불행하게도, 아무도 내가 아는 언어로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초기.. 나는 비참함을 발견합니다. 때는 겨울 그리고 날씨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내가 도착한 그 날, 나는 바로 방으로 인도되었고, 매우 피곤해서, 곧바로 침대에 쓰러져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깨어났을 때, 너무 추워서 이불을 하나 더 덮으러 찾았으나 장롱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잠들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방을 나와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를 만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한 나의 노력에도 그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아 내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에 있는 사전으로 나는 한 구절을 만들어 나를 이해시키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몸짓과 손짓만이 결국 내가 담요가 더 필요함을 그녀에게 이해시켰습니다. 그녀 역시 담당자가 방에 담요 하나만 놓아 둔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후로, 이 자매는 나의 친구가 되었고 그녀는 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중에, 자매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피곤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그들 사이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때때로, 몇몇이 내 가까이에 머물기를 망설이고 내가 있는 식탁에 앉는 것을 피할 때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오직 담요 찾는 것을 도와주었던 그 자매만이 내게 가까이 오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우 괴로웠지만 다른 자매들 또한 괴롭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언어를 배우고 소통 하려 애쓰듯, 나를 도우려는 자매들의 노력 또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엉망인 문장임에도 더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표현했으며, 잘못된 문법으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나는 온갖 것들에서 정정해야 하는 것에 화가 났으나, 그것이 나를 돕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좀 더 나의 자매들을 알기 시작했고, 결국 공동체 소속감은 높아졌습니다. 나는 나의 문화를 나누었고 부라질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흥미롭게 하는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다문화교류의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나의 문화로부터 고유한 무언가 나눌 것이 있듯이 다른 문화로부터 고유한 어떤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부라질 문화에 의해 나의 문화가 풍요로워 지도록 수용함은, 나의 필리핀 문화를 깊게 했습니다. 이(異)문화교류(다른 문화와의 교류)는 나의 삶의 방식이 되며, 기쁜 다문화적 삶은 거룩한 친교로 나아가는 내

삶의 증거입니다.

(레오니 프레군타, SSpS 부라질 선교사)

• 어떻게 나의 이야기와 하느님 친교 이야기의 연속으로 다른 이들의 이야기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며 성장했는가?

문화간 교류가 나의 소명이며 국제공동체의 삶이 그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는가?

• **나눔:** (동석자와 함께 나눌 수 있다.)

**복음:** 루가 1,57~66(세례자 요한의 탄생)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아갔다.]

복음에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 큰 경이로움을 느끼며, 하느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 기도지향

화답송 : **문화의 하느님, 저희의 기도들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소서.**

1. 가족, 생활환경, 국적과 문화유산 등 우리의 원천에 대해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소서.
2. 나의 문화와 나의 의견이 다른 이들의 문화보다 좋고 우위에 있다는 느낌으로 압도될 때 ,
3. 동정과 이해심으로 우리를 계속 통제하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4. 내가 맞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을 쏟는 성향일 때,
5. 문화적 편견이 우리를 가리우고 다른 문화적 가치들에 세심하고 감사하는 대신 판단에 골복할 때,  
(- 누구든 다른 기도를 추가할 수 있다.)

### **주님의 기도:**

### **마침기도:**

다문화교류의 하느님, 저희를 당신 성령께 순응케 해 주소서. 그리하여 성령과 함께하시며 우리의 다양성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도록 이끄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이다. 우리의 다문화성의 가치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15차 총회를 위한 기도**

### **마침성가**

### **성모찬송**

## 성탄노베나 9일째.

### 세대간의 상호작용하는 삶으로의 부르심

들어가기전에: 주님의 현존 앞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  
집시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임마누엘 이신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려 봅시다.

**시작노래:** (성령과 관련된 노래 선택)

**초대말:** 9일째의 노베나 주제는 “세대간의 상호작용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세대 간의 다름 안에서 풍요로움과 동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익숙해 지려고 노력 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속적  
으로 개방하고 변화시키려는 지향으로 기도 합시다.

**심볼:** (아래의 문구를 모두가 잘 보이도록 쓰기)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20대 또는 80대라 할지라도 누구나 늙을 것이다. 항상 배  
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젊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헨리 포드, 1863-1947).”

**성찰:**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동체 생활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  
체로서 세대간의 차이, 늙는 것은 무엇이며 젊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  
해 숙고해 봅시다. 나이가 더 많거나 적거나, 전진하거나, 뒤쳐지는 것에 대한 생  
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채로운 공동체 생활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세대간의 상호작용의 우선권과 상실감은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들  
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주어진 문구를 통해 우리의 약하고 취약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있는 자매들에게 어떻게 변화하고 회심과 우정을  
나누도록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 성찰 후 느낌과 깨달음을 나누기

**독서:** 루카. 1:39-45 (젊은 마리아와 성숙한 엘리사벳의 생명을 주는 만남)

**청원기도:**

**응송:**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노래도 가능)

1. 주님, 저희가 젊은이와 연장자를 서로 이어주고 나누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2. 주님, 저희 안에서 세대간의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또 서로 좋은 관계를 열망할 수 있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연령에 따라 점점 더 분리되고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직시하면서도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와 통합을 이루며 살아있는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소서.
4. 주님, 저희의 서로 다른 성격적인 차이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거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존경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세대간의 연대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5. 주님, 저희가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어 보다 더 수용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에 개방되고 준비되어 있는 수도자가 되게 해 주소서.

**주님의 기도**

**마침기도:** 임마누엘의 주님, 당신은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곁으로, 아주



가까이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문화나 나이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마음을 느끼고, 당신의 발로 걸어가고, 당신의 눈으로 보고, 당신의 귀로 듣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 손을 뺏어 당신 삶을 우리 사회의 약하고 힘없는 이웃들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 15차 총회 기도**

**마침 노래:** "우리는 여행의 동반자..." , 혹은 "살베레지나"